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영예의 대상, KBS 대구 <기억, 마주서다>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방송의 날을 기념하며 1973년부터 시작하여 1년 동안 지상파채널을 통해 시청자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방송 프로그램을 알리고, 방송인들의 노력을 치하해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시상식인 한국방송대상이 올해 46회를 맞아 지난 9월 3일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냈던 수많은 시사, 보도, 교양,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우수했던 작품과 방송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그 업적을 격려하는 한국방송대상은 모두 272편의 작품이 출품되었고, 75명의 방송인을 대상으로 하여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25편의 작품과 19명의 방송인이 선정되었다.

이번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KBS대구방송총국의 <기억, 마주서다> 작품이 영광의 대상을 차지했다. 대상을 수상한 KBS 대구방송총국의 <기억, 마주서다>는 ‘다 끝난 일’이라며 잊혀 가던 인혁당 재건위사건, 2.28 민주화운동, 10월 항쟁 등 지난 100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증언자의 목소리로 생생하게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킨 작품이다.



작품상 MBC <뉴스데스크>의 '故 김용균씨 사망사고', SBS <열혈사제> 등 25편 개인상에 변상욱(공로상), 김남길(연기자상) 등 19인 선정

이외에도 △ 뉴스보도부문 MBC의 <MBC 뉴스데스크>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연속 보도 △ 지역뉴스보도부문 KBS부산방송총국의 <KBS뉴스 9 부산> 심층기획 '센텀2지구, 정의로운 개발인가' △ 시사보도TV부문 KBS의 <시사기획 창> '조선학교 - 재일동포 민족교육 70년' △ 시사보도Radio부문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 - '직격 인터뷰' △ 지역시사보도부문 부산MBC의 특집 예산추적프로젝트 <빅벙커> △ 생활정보TV부문 KBS의 <회사 가기 싫어 2019> △ 생활정보Radio부문 MBC의 <여성시대 양희은, 서경석입니다>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 지역교양TV부문 광주MBC의 <핑크피쉬> △ 지역교양Radio부문 MBC강원영동의 <발해를 꿈꾸는 기자> △ 다큐멘터리TV부문 KBS의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 다큐멘터리Radio부문 CBS의 해외특집 다큐멘터리 <남겨진 이들의 선물> △ 지역다큐멘터리TV부문 TBC <풍정 라디오 2018>, MBC충북의 <살처분, 신화의 종말> △ 지역다큐멘터리Radio부문 여수MBC의 <9일간의 기록> △ 교육문화예술부문 EBS <다큐프라임> '미래학교 Future School' △ 사회공익부문 KBS의 <KBS스페셜> '주문을 잊은 음식집' △ 중단편드라마부문 SBS <열혈사제> △ 예능버라이어티TV부문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 연예오락TV부문 MBC <구해줘! 홈즈> △ 연예오락Radio부문 MBC 별이 빛나는 밤에 50주년 기념 특집 기획 <별밤 로드 1320> △ 음악구성Radio부문 EBS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 지역오락TV부문 춘천MBC <나이야가라> '출장 장수사진관, 리마인드 웨딩, 영화제작 도전' △ 지역오락Radio부문 안동MBC 라디오드라마 <임청각> △ 어린이부문 EBS <자이언트 팡 TV> 총 25편이 작품상을 수상했다.

개인상은 △ 공로 CBS 변상욱 △ 지역방송진흥 KNN 진재운 △ 보도기자 SBS 조동찬 △ 스포츠제작보도 KBS 이태웅 △ 카메라기자 KBS 권순두 △ 아나운서 CBS 정민아 △ 진행자 박나래(MBC 나 혼자 산다) △ 프로듀서 SBS 이윤민 △ 미술 EBS 박종문 △ 영상그래픽 KBS 진수아 △ 조명 MBC 오승철 △ 기술진흥 MBC 기정모 △ 영상촬영 EBS 조규백 △ 음악 EBS 노신영 △ 작가 MBC 윤희영 △ 내레이션 윤주상(EBS 극한직업) △ 연기자 김남길(SBS 열혈사제) △ 코미디언 유민상(KBS 개그콘서트) △ 뉴미디어프로그램제작 SBS 하현중 총 19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우진, 김지훈 대상 수상자



진행을 맡은 한상현 KBS 아나운서, 김민형 SBS 아나운서, 김대호 MBC 아나운서



라디오작품상 수상의 연예오락 부문 신성훈 수상자



뉴스 시사 작품상 수상



성우, 내레이션 개인상의 탤런트 윤주상



라디오작품상 지역오락 부문 강병규 수상자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주요 작품상 수상작

제46회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 소감



조명상 오승철 MBC 조명감독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 소감

시상식에서 지난 일들이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조명쟁이'란 업을 천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김원영 선배님, 일산드림센터 조명시설 구축에 저를 이끌어주셨던 오승만 선배님, 선의의 경쟁자이자 파트너로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나재희 감독님, 상암 신사옥 건설에 고민하던 제게 하나같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조명 선배님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회사 입사 후 항상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지난 1년은 정말 바쁘게 지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40도 무더위에 임진각 평화누리 DMZ 평화콘서트에서 같이 고생했던 라이팅 코리아 식구들, DMCF 공연 때 우천으로 세팅 시간이 모자란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을 해주었던 그린조명 식구들, 명 라이팅 식구들, 가요대제전 몇 날 밤을 쪽잠 자면서 조명 큐를 메모리 해주었던 김한성, 이은배 오퍼레이터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옆에서 저만 바라보며 내조해주는 김미형 님과 지환, 지우 두 아들에게도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합니다.

최근 쇼 조명의 트렌드가 있다면? 제작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최근 쇼에서 다양한 Camera가 사용되어 녹화되고 있는게 요즘 추세입니다. 기존 스튜디오의 Standard, EFP Camera를 포함하여 ENG Camera, DSLR, CCTV, 6mm Camera, 360도 VR Camera 등 종류도 다양해졌고 수량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영상의 퀄리티를 녹화시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원하는 조명효과를 제대로 구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근무자와 많은 대화와 정보를 공유합니다.

방송조명 업무를 하며, 보람을 느낀 순간은?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은 다른 사람도 먹기 싫다." 어느 식당에 걸린 문구입니다. "내가 보기 싫은 영상은 다른 사람도 보기 싫을 것이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제가 디자인하고 구현한 조명영상 짤(?)과 클립의 조회 수가 많을 때 혼자 조용히 미소짓곤 합니다. 지난 4년간 복면가왕 조명감독으로서 일했던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나서는 참 고마웠던 시간이란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고정된 세트와 한정된 장비로 매번 21개의 노래와 분위기에 맞게끔 조명디자인을 설계하다 보니 조명에 대한 고민도 더욱 많이 하게 되었고 또한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고 고마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 하고 싶은 조명 일을 열심히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라디오 MC 비투비 정일훈씨, 손썬PD가 항상 먼저 고맙다고 전하는데 오히려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조명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게 기회를 줘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명 영역의 확대와 많은 후배가 먹고살 일거리를 찾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기술진흥상 기정모 MBC DI특수영상제작팀 차장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수상 소감

항상 좋은 방송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많은 동료에 비해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하고 민망할 따름입니다. 2019년은 MBC에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고난의 몇 년을 보낸 후, 정직하고 바른 방송사로 다시 서기 위해 안팎으로 모든 사원이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DI팀에게는 그간 드라마의 UHD-HDR 제작 기술 노하우를 토대로 UHD-HDR 영상을 시청자에게 지상파로 첫선을 보이는 소중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회가 관련된 여러분들의 긴밀한 협조로 제작 및 송출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규 방송인프라본부장님을 비롯, 원경희 제작기술국장님, 임신환 종합편집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HDR 송출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김재훈 차장님, HDR 방송을 기획하고 서포트 해 준 김희준 차장님, TV제조사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할 수 있게 해 준 이동관 차장님, 이 3인방이 없었으면 HDR 지상파 방송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SDR 레퍼런스 컬러를 마련해 준 이종하, 홍병욱 차장님을 비롯하여 까다로운 원본 리링크를 묵묵히 수행해 준 조아란, 이재용, 정우진님, 그레이딩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은영, 김대원, 석정은 차장님을 포함하여 저희 DI 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아근에도 말없이 믿음으로 응원해 준 저희 아내와 경민, 사민 두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UHD-HDR 다큐 '곰'을 제작하며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든 처음 하는 일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HDR을 제작하며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많이 고민하였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테스트를 했습니다. 또한 UHD-HDR과 HD-SDR을 동시에 송출하는 것은 MBC 방송역사에 첫 시도이기에 여러 유관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러시아월드컵 HDR 방송의 테스트 결과들이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고, 꾸준히 제작해 온 HDR(PQ) 드라마 DI 제작의 노하우가 더해져서 HLG-HDR 제작/송출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상 첫 UHD-HDR 전파에 관계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톤의 기준도 없었으나 여러 가지 테스트 끝에 작품의 적절한 톤을 찾았고, 이것을 '곰'의 제작에 적절히 적용하였습니다. HDR 영상에 제작진은 찬사를 보내었고 비로소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HDR 제작 최근 트렌드에서 기존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면?

처음 HDR 제작을 시작했을 때는 놀라운 하이라이트 재현성으로 인해, 되도록 HDR의 장점이 부각되도록 하는 그레이딩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각적 피로도의 문제가 있었고, 이후 점차 안정적이고 편안한 HDR 그레이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는 넷플릭스 등 해외 HDR 제작 업체의 현재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수한 HDR-SDR 컨버터의 등장으로 하나의 HDR(2020) 마스터 본으로 효과적인 SDR(709)본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Sony나 K2E, For-A 등 우수한 컨버터들이 있었지만 저희는 AJA의 FS-HDR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하이라이트의 계조를 보존하며 왜곡이 덜한 SDR 이미지를 얻는데 효과적이었습니다. HDR 워크플로우는 한층 심플해졌고, 제작 속도도 조금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HD 방송용으로 제작한 SDR 영상을 토대로 HDR 영상을 복각하는 방식이어서 시간과 노력이 두 배로 들었지만, 이제는 HDR 영상을 우선 제작하는 동시에 SDR 영상을 모니터링하여 HDR 그레이딩에 참조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HDR/SDR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과 하고 싶은 말

2019년 창사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 역시 HDR/SDR 동시 제작을 목표로 기획하였고 촬영 중입니다. HDR을 한 번 접해 본 이들은 그 놀라운 영상에 누구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HDR 초기의 민수용 TV들이 전문가용 모니터 수준의 밝기와 색재현성을 가지지 못해, 제작된 컬러가 제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HDR이 대중화되는데 주요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날수록 디스플레이 기술이 눈부시게 성장함에 따라 점점 시청자도 TV와 휴대폰을 통해 우수한 HDR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 등 선진 OTT는 이미 HDR 제작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넓은 컬러 볼륨과 폭넓은 콘트라스트의 비율로 사실감과 입체감이 월등히 좋아지는 HDR(WCG)의 세계에 어서 빨리 많은 시청자가 들어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HDR 워크플로우는 어느 정도 정립되었고, 남은 것은 제작 의지입니다. 조금만 촬영 및 후반제작 일정을 앞당긴다면 UHD 지상파 드라마도 곧 HDR로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HDR 생태계가 좀 더 확산되어 더 많은 HDR 영상이 제작되고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

